

교계 사이버테러 '심각'

단체명-단체장 도용 바이러스 활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안티불교' 폐쇄명령

조계종 포교사단에 근무하는 하영태 교장은 며칠 전 재가연대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그 메일은 재가연대가 보낸 메일이 아닌, 단체명을 도용한 바이러스였다.

최근 교계 각 언론사와 단체에 '재가연대' 등 단체명과 단체장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로미오와 줄리엣' 바이러스 메일이 배달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테러는 수법이나 행태로 보아 일단의 해블세력이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사이버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종단차원의 공개적인 사이버수사 의뢰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은 2월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이틀간 업무가

중단돼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야 했다. 교계의 한 언론사도 바이러스로 인해 컴퓨터 모드를 새로 세팅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바이러스메일과 스팸메일의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져 단체들과 불자네티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단체명과 단체장 이름을 도용하여 제목에서 눈길을 끈 뒤 바이러스를 보내거나 한번에 200~300개의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 업무를 방해하는 스팸메일 범죄(람메일)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교계차원의 대처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바이러스에 걸리면 내 컴퓨터의 주소록에 있는 모든 이메일 주소로 감염된 메일이 나가 평소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컴퓨터도 감염시켜 불교단체간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 발

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자우편으로 확산되며 전자우편 클리닉 하면 감염되는 '로미오와 줄리엣' 바이러스 퇴치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www.update.microsoft.com)에 들러 보안패치를 설치하면 된다.

한편, 본지 304호 보도이후 조계종 포교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음카페에 개설된 '안티불교'가 '안티' 사이트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 불교를 비방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형법 제100조에 위배된다' 판단하고 12일 다음카페에 폐쇄를 통보했다.

하지만 국내사이트가 아닌 미국 yahoo(야후)에 개설해 국제세탁을 거친 안티불교사이트는 현재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새만금 살리자" 종교인 한마음 새만금 반대 범종교인 기도회에 참석한 성직자 5백여명은 14일 첫 별에 사는 생명체를 목조인형으로 만들어 조계사에서 명동성당까지 시위를 벌였다. 사진=고영배 기자

'노인들 일거리 만들기' 금산사 복지원 나섰다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이사장 도영·금산사주지은 2월 26일 전주시로부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수탁 기관'으로 지정돼 조만간 노인 30~100명을 대상으로 불교용품 만드는 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산사복지원은 전주시로부터 예산 1천440만원을 지원받아 염주, 합장주, 연등, 주름등, 예수제 및 수묵재 제수용품, 수의, 상복 등 불교용품을 만드는 일거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성 질병 및 생활고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불교용품을 신도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금산사복지원 이원일 사무국장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불교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생산품목을 개발하면서 전주시 원산구 평화동 2가에 대해 808평방미터의 '노인 일거리 마련 작업장'도 마련해 노인복지의 중심센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복지법인을 설립, 전북불교회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노인복지사업에 들어간 금산사복지원은 앞으로 노인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노인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위덕대 '우수대학' 선정

재정·경영·시설 영역 등 기 평가가 시작된다.

위덕대는 개교한지 5년만에 대학 종합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점 만점에 441.48점(88.30%)을 획득, 463.08점의 최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과 비교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영영역은 상위 3개 대학에 속하는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시설·설비영역은 우수평가, 교육·연구·사회봉사·교수 등 여타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경숙기자

사찰 국보급 문화재 절도범-수집상 검거

전국의 사찰 등을 들며 국보급 문화재를 훔쳐온 문화재 전문절도범과 일당 1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봉선사에서 '불경언해 활자본' 등을 훔친 문화재 전문절도범 추모(60)씨와 고미술품 등을 밀거래해 온 W회랑 대표 차모(47)씨, 골동품 수집상 박모(47)씨 등 5명

을 특수절도 및 장물은닉 혐의로 12일 구속하고 달안문 문씨 등 5~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99년 2월 봉선사에서 '불경언해 활자본' 7점과 동경 1점 등을 훔친 뒤 골동품 수집상 서모(40·구속)씨를 통해 규모(56·수배)씨에게 판매했다.

검찰은 최근 서초경찰서에서 해남대사사 성보박물관 불경 도난사건을 수사하던 추모(60)씨와 고미술품 등을 밀거래해 온 W회랑 대표 차모(47)씨, 골동품 수집상 박모(47)씨 등 5명

권형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 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 / 동서통역사 손인국 · 아보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자비행 2편

한성포교원 법농스님 서울시장 표창장

서울 한성포교원 법농스님은 지난 13일 고건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불우이웃들에게 솔선수범해 시민들에게 귀감이 됐기 때문이다.

법농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것은 95년 육바라 밀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부터. 94년 개원한 포교원 재정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에 매년 600여만원씩 7년간 계속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스님은 또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매년 노인 잔치를 베풀고 김장을 담궈주는 한편 명절 때마다 차례상을 마련해 주고 있기도 하다.

"부끄럽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실 우리 포교원도 형편이 어렵지만 힘들 때 조금씩 돕는 것이 진정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경기 양평 양수리에 가족이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찰을 지어 어린이포교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광주 자비신행회 불우이웃 '장학금'

지난 10일 광주 자비신행회(지도법사 현장·대원사 주지)는 광주·전남지역 교사불자회 소속 학교 학생 24명과 중앙승가대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한 스님에게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자비신행회 회원인 보성건설 대표이사 이기승씨의 보시금과 회원들이 모은 기금을 합한 것이다.

350여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나선 것은 지난 1월부터. 보성군 관내 17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모두 340만원의

장학금과 쌀 등을 전달하는 등 그동안 및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했다.

자비신행회의 자비행은 신행회가 창립된 99년부터 시작했다. 현장스님과 회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 돕는데 의견을 모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오고 있다.

현장스님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이 많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한 학생이라도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삼풍참사 6주기 대규모 천도재

무주 고촌 천도재"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95년 6월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502명이 목숨을 잃었다.

천도재는 4월 5일 사고 현장에서 조계종 총무원 주재, 화엄사 주판으로 봉행하며, 전남곡성 성문사 조실 청화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법어와 추도사를 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총무원과 화엄사는 이에 따라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천도재 봉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천도재 봉행을 준비한다. 봉행위원회는 24개 교구본사 주지, 집행위원회는 화엄사 주지 종결스님(위원장)과 총무원 집행부 부장급 스님들로 구성된다.

한편 삼풍백화점 부지(6870평)는 96년 (주)대상에 매각됐으며, 대상은 이곳에 대형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사 신협 지흥스님께 손해배상 5억 청구 소송

지난해말 파산선고가 내려진 조계사 신협 이사장과 감사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9민사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신협 이사장 지흥스님에게 5억원, 감사였던 이종현(전 조계사 재무계장)씨와 김지형씨에게 각각 1억원을 청구했다.

한명우 기자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적멸보궁 금강계단을 개설하여 근 천사백여년간 전국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무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통도사 버스 - 부산 : 온천장 지하철역앞 · 울산 : 태화호텔, 공업R, 무개R
대중교통 - 부산 : 명륜동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 울산 : 시외버스터미널 · 서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 동참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기와 접수처 및 각 말사

입 제 : 2001년 3월 29일 (음력 3월 5일) - 3일간 -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현산 대화상
주 지 신 허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 055)382-7182 FAX 055)382-7196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 학인 모집

1901년 지방학림의 인가로 출범한 통도사 강원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교계의 인재배출해온 불학의 전당이었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학불장(學佛場)으로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최고 경력을 자랑하는 강주 지안스님, 강사 진원, 혜엄스님, 중강 양관스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지 신허스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중의 학인생활이 면학위주로 개선되어 새로운 학풍을 드날릴 주인공이 될 동수도반(同修道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학과	기 간
· 치문과	0명
· 사집과	0명
· 편입학 : 사미과 수료증 및 전학증 치참	2001년 양력 3월 31일까지

□ 20기 행정교육 수료자 서류접수 : 2001년 양력 3월 24일 ~ 4월 6일까지

□ 문 의 처 : 055)383-2363(경원), 382-7182(종무소)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 신 허 강주 : 지 안